



To: Those on the Margins

Press release

Re: The Beauty of Vulnerability

From: Nahyun Kim

3.12_3.26 2026 

회신 : 취약함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김나현, 경계에 있는 존재들의 취약한 아름다움

허은미(에이치플럭스 갤러리 디렉터)

우리의 대부분은 자신의 본성을 감추고 다양한 가면을 쓴 채 살아간다. 매 순간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현대인에게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사회적 소외에 대한 공포를 수반한다. 우리는 흔히 상처받기 쉬운 연약함과 취약함을 숨겨야 하는 결핍이나 부족함으로 치부하곤 한다. 사회적 규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생활의 미숙함이나 낙오를 넘어 무리에서 추방되었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생존의 위협이자, '나의 존재까지도 사라질지 모른다'는 실존적 위기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나현의 작업은 단순히 소외된 감정의 표현을 넘어 실존적 위태로움 속에서 '취약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묻는 치열한 존재론적 투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투쟁의 현장은 다름 아닌 타자로서 '주변부'에 대한 주목이다. 작가에게 주변부란 단순히 사회적 지위를 넘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의 상태로, "정상성의 규범에 완전히 합치되지 못하는 상태, 집단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승인되지 못하는 감각"에 가까운 것이다. 작가는 이렇게 존재가 부정당한 주변부의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 단단히 애써왔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유목적 정체성과 존재의 변화 조건으로서 '취약성'이 응축되어 나타난 장이라 할 수 있다. 죽은 것은 변하지 않기에 단단하게 경직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변하기 마련이다. 무언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외부의 자극에 열려있다는 것이며, 이는 곧 상처받기 쉬운 상태를 의미한다. 작가는 이런 약한 상태를 오히려 "변화의 가능성"으로 보고 취약함을 극복해야 할 결핍이 아닌 "재생과 성장의 힘"으로 본다. 이렇듯 그에게 취약함은 견고한 자아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나로 이행하는 생명력의 본질로 정의된다.

취약함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2024년 초기작인 펜 드로잉 <그리고>에서부터 이미 선명하게 드러난다. 9개의 판넬로 구성된 드로잉에는 "너무나도 취약해" "정체성은 붙잡을 수 없이 부유하는 것"같은 문구들이 비명처럼 쓰여있다. 또 "내게서 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막을 수가 없네" 같은 발언은 억압된 자아를 드러내는 실천적 행위이자, 내면과 외부를 가르던 경계의 붕괴를 가시화하는 듯하다. 이때 작가의 입에서 나오는 오물은 단순한 생리적 배설물이 아니라, 나를 규정하던 질서가 무너져 내리며 터져 나오는 자아의 파편이자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작업은 <다시>연작에서 도자의 조형물과 드로잉이 유기적으로 얽히며 확장된다. 작가에게 흙은 가마의 고온을 견디며 단단한 기물로 변모하는, '변화와 취약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최적의 매체이다. 태아를 닮은 형상부터 위로 솟은 장기와 유두까지, 각기 다른 조형물은 독립적이면서도 핑크 빛의 붉은 살덩어리로 응집된다. 특히 아르테미스 도상처럼 여러 개의 가슴과 남성 성기가 한 몸에 뒤엉킨 기이한 형상은 남성과 여성, 어머니와 태아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이분법적 질서에 길들여진 우리의 인식체계를 뒤흔든다.

이러한 혼성적 모호함은 조형물과 유기적으로 종합된 드로잉 작업들로 이어진다. 혈액의 번짐과 뉴런, 식물의 뿌리와 동물의 형상의 뒤섞임, 그리고 헛바닥과 증식하는 세포를 연상시키는 파편적인 이미지들은 어느 하나의 형상으로 박제되기를 거부한 채 붉은색의 유기적인 흐름 안에서 부유한다. 루이스 부르주아가 붉은색을 고통이자 생명의 매개로 사용했듯이, 작가에게 핑크빛은 피와 생명을 의미하는 동시에 모든 형상을 하나의 거대한 생명력으로 결속시키는 시각적 장치로 작용한다.

특히 그녀의 도발적인 작품 <토끼 굴(Rabbit Hole)>시리즈는 루이스 케럴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상식과 질서가 무너지고 전복하는 은유적 기호로 재탄생한다. 흔히 미궁이나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을 말하는 Rabbit Hole을 여성의 성기와 연결시킨 것도 파격적이지만, 여성의 성기를 송고한 생명의 근원으로 신비화하고 미화하는 관습을 거부한다. 대신 짜글짜글한 주름과 거칠고 축축한 질감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비천한 여성의 살 덩어리로 표현한다. 이는 전통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저항이자 미와 추의 경계가 사라진 혼종적 세계로 우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보인다.

이러한 기괴한 형상들은 미학적으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아브젝트 아트(Abject Art)'를 연상시킨다. 크리스테바에게 아브젝트란 주체도 객체도 아닌 경계가 모호한 것들로, 온전하고 깨끗한 주체를 유지하기 위해 밀어내야만 했던 배설물, 오물, 시체, 피와 같은 것들을 말한다. 한때는 나의 일부였으나,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즉 주체가 배척하고 밀어낸 그림자로서의 존재들이다. 키키 스미스(Kiki Smith)가 파편화된 신체를 통해 취약성을 가시화하고, 루이스 부르주아가 혐오스러운 도상으로 고정된 주체성을 해체했듯이, 김나현 역시 파편적이고 왜곡된 형상을 통해 사회적 금기와 정상성의 경계에 질문을 던진다. 작가가 소환한 그로테스크한 형상들은 우리가 온전한 주체로 서기 위해 밀어내고 부정했던, 가장 깊숙이 숨기고 싶었던 비천한(abject) 자아의 파편들이다. 작가의 드로잉과 조형물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피는 아브젝트로서 상징화되기 이전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숨겨져 있던 날것의 실재(The Real)를 은유한다.

이런 붉은 살덩어리들이 우리에게 낯설고 그로테스크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 온 그림자 같은 나의 취약한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오는 공포 때문일 것이다. 김나현의 작업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매혹적이다. 그녀는 공포와 매혹을 분리하지 않고, 존재 자체가 본래 낯설고 불안정한 감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견고했던 일상의 표면에 균열을 만들어, 매끈한 표면 아래 은닉해 있는 실재를 대면(Confront)하고, 고착된 자아라는 감옥에서 탈주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들뢰즈적 생성(Becoming)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그녀에게 자기파괴는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생명작용인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전시제목 <수신: 경계에 있는 존재들에게, 회신: 취약함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발신: 김나현>에서 비로소 집약된다. 작가는 이메일의 수/발신 양식을 차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이 반영된 고백적인 작업이 단순히 개인의 독백으로 휘발되는 것을 경계한다. 마치 사회가 규정한 취약함의 정의에 저항하듯이, '취약함의 아름다움 (The Beauty of Vulnerability)'으로 내보내는 회신(Re)은 공식성에서 배제된 사회적인 아브젝트 존재들을 소환함으로써 개인적인 경험을 보편적인 메시지로 확장하려는 듯하다. 결국 작가가 보내는 메일을 통해서 우리는 취약한 존재들이 열어젖힌 틈을 응시하고 끊임 없이 생성되는 존재의 생성 작용을 마주하게 된다.



79,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5, Korea

Instagram@hflux_gallery

To: Those on the Margins

Re: The Beauty of Vulnerability

3.12_3.26 2026

From: Nahyun Kim

회신 : 취약함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About the artist

김나현(Nahyun Kim, b.2002)은 도자, 드로잉, 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정되지 않는 정체성과 존재의 조건에 주목한다. 특히 '취약함'을 단순한 결핍이 아닌 재생과 성장의 가능성으로 정의하며, 파편화 되고 왜곡된 형상을 통해 살아가는 힘과 변화의 과정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에서 도자예술과 서양화를 전공하였으며, 《이 작품을 주목한다(2024), 《삶, 흐름, 그리고 그 너머로》(2024), 《SWING BY》(2025) 등의 다수의 전시에 참여한바 있다.

2026년부터는 영국 Glasgow School of Art Contemporary Art Practice 과정에 입학할 예정이다.

그녀의 주요 관심사는 '취약함'이라는 감각과 경계가 혼재된 신체의 형상을 통해, 끊임없이 변형되고 이동하는 존재의 상태를 탐구하며, 완성이 아닌 계속해서 '되어가는(becoming)' 과정 자체를 지향한다.

김나현 (Nahyun Kim)

출생: 2002년, 서울, 대한민국
거주 및 작업: 서울, 대한민국
이메일: MINACHUNG02@NAVER.COM
인스타그램: LIL_EWHA

학력

2025,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도자예술과 졸업
2025,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2026, MLITT, CONTEMPORARY ART PRACTICE, GLASGOW SCHOOL OF ART 입학 예정)

주요 단체전

2022 《덜다 : 減》,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23 《2023 EUMC FAIR 2023 별뿔》, EUMC 갤러리, 서울
2023 《바다건너 카메라와 20인의 여행가들》, 갤러리 인사아트, 서울
2023 《2023 MAYDAY EXHIBITION》,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24 《이 작품을 주목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24 《삶, 흐름, 그리고 그 너머로》,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25 《SWING BY》,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25 《SWING BY》, EUMC 갤러리, 서울

수상 경력

2024, 이 작품을 주목한다, 지원금 수혜
2024,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졸업전시 우수작품, 지원금 수혜



79,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5, Korea

Instagram@hflux_gallery



To: Those on the Margins

Re: The Beauty of Vulnerability

3.12_3.26 2026 

From: Nahyun Kim

회신 : 취약함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Artist's Statement

나는 항상 주변부를 맴돌며 살아왔다. '주변부'는 단순한 사회적 위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상성의 규범에 완전히 합치되지 못하는 상태, 집단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승인되지 못하는 감각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감각 속에서, 나의 정체성,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보기 위해 수없이 애써 왔다.

지금 이 지점에서 말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은, '끊임없는 변화' 그 자체, 그리고 '취약함'이다. 쉽게 변하고, 한 가지 상태에 머무르기 어렵고, 통제할 수 없는, 또 나약한 어떤 것. 그러나 나는 결코 취약함이 부정적인 특성이라 여기지 않는다. 변질되기 쉽다는 것은 다른 요소와 관계 맺기 쉽다는 뜻이다. 취약하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깨트리고 또 다른, 그 다음의, 다시 그 다음의 나를 찾아 나갈 수 있다. 취약함은 곧 계속되는 변화를 말하고, 그것은 결국 살아있다는 증거다.

도자는 변화와 취약함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매체다. 처음에는 무른 흙덩이에서 시작하지만 서서히 기물로 변모한다. 햇빛, 바람, 온도와 습도 같은 과정을 따라 기물은 건조된다. 초벌기에 유약을 바르는 것 또한 광물질 가루의 혼합으로 뒤덮는 것에 불과하나, 가마 속의 열기로 성질이 변화하여 유약을 입은 표면으로 완성된다. 완성된 도자기는 단단하지만 깨지기는 쉽다. 흙의 물성과 유약의 흐름, 가마의 열이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는 통제의 대상이라기보다 작업의 일부다. 드로잉과 회화에서는 우연히 남은 흔적 위에 다시 레이어를 더하며 화면을 구성한다. 이전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다음 사건과 겹쳐지고, 그 중첩 속에서 또 다른 형상이 발생한다.

나는 취약하고 변하기 쉬운 것들에 대해 말하고 싶다. 그것들은 고정적 정체성에서 추방되어 주변부를 맴도는 존재다. 그들은 늘 변화하고 또 다른 존재들과 만나 변화를 일으키기에 정형화된 형상으로 나타날 수 없다. 오히려 모호하고, 정체를 알 수 없고, 유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취약한 신체는 그 아래의 살덩이를 드러내며 껍질을 벗어 던지는 모습이다. 화면 속에서 자라나는 선들은 서로를 향해 뻗어 나가며 접속을 시도한다. 그 움직임은 관계 맺기의 과정이자 변화의 몸짓이다. 나는 그러한 형상을 마주하는 모든 이들이 취약함의 힘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살아가며 겪는 사소한, 거대한 모든 경계에서 손을 내밀어 접속하기를. 그리고 변화하기를. 계속해서 그러한 과정 중에 살아 나가기를.



79,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5, Korea

Instagram@hflux_gallery



To: Those on the Margins

Re: The Beauty of Vulnerability

3.12_3.26 2026 

From: Nahyun Kim

회신 : 취약함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Artist's Statement

I have always lived on the margins. For me, the 'margin' is not merely a position on the outer edges of society; it is a profound dissonance – a state of being where one cannot fully align with 'normalcy,' existing within a collective in which one's presence is never truly accepted. Within this state of liminality, unsettled and full of doubt, I have been striving to define my identity and sense of self. I have come to define my identity in terms of 'change' and 'vulnerability. To be vulnerable is to be in constant flux—to be uncontrollable, fragile, and resistant to permanence. Yet I do not perceive vulnerability to be a defect. On the contrary, to be susceptible to change is to be capable of human connection. It is precisely because I am vulnerable that I can discard my present self and seek out another —and another after that. Vulnerability is the pulse of transformation; it is the ultimate evidence that we are alive.

Ceramics serve as the most poignant medium to articulate this duality of change and fragility. What begins as a malleable lump of clay gradually transfigures into something with grace and beauty, brought to fruition through the benevolence of sunlight, wind, temperature, and humidity. The application of glaze—a mere layer of mineral dust—undergoes a radical chemical metamorphosis within the kiln's heat, emerging as a vitrified surface. The resulting ceramic is a paradox: it is solid yet has the potential to shatter. The unpredictable outcomes born from the synergy of clay, the strokes of glaze, and the intensity of fire are not elements to be subdued or downplayed, but are instead vital aspects of my artistic practice. When I work with drawings and paintings, I build compositions by layering new images over marks made accidentally. The past is never fully erased; it bleeds into subsequent events, giving rise to new forms through overlap and accumulation.

My work speaks for the mutable and the fragile – outcasts with no fixed identities left to wander the margins of society. Because they exist in a state of constant evolution, they cannot be confined to a single shape or silhouette. Instead, they manifest as ambiguous, indeterminate entities. They are like vulnerable creatures shedding their skins to reveal a new layer of flesh beneath. The lines proliferating across the canvas reach out towards one another, searching for 'points of contact.' This movement is both a process of forging relationships and proof of transformation. I want those who encounter these forms to comprehend the inherent power of vulnerability. I hope each person finds the courage to reach out from their own boundaries to connect, to understand, and to experience, perpetually, a beautiful process of transformation.



About the artist

Nahyun Kim (b. 2002) is a Seoul-based artist whose work explores the fluidity of identity and the precarious conditions of existence. Through the use of ceramics, drawing, and painting, Kim redefines 'vulnerability' as a potent catalyst for regeneration, rather than a deficiency. In her fractured and distorted works of art, she manifests the primal, incessant process of metamorphosis.

Kim earned her BFA in Ceramics and Western Painting from Ewha Womans University. Her work has been featured in exhibitions including I Pay Attention to This Work (2024), Life, Flow, and Beyond (2024), and SWING BY (2025). In 2026, she will join the Contemporary Art Practice (CAP) program at the Glasgow School of Art (GSA) in the UK.

Moving forward, Kim seeks to deepen her experimentation with impermanent states of being, creating artworks where the boundaries between our internal and external worlds dissolve. Her practice is rooted in the concept of 'becoming'—a constant experience of alternation and transience—prioritizing the trajectory of the process over any fixed state of completion.



79,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5, Korea

Instagram@hflux_gallery